



선천(先天)과 후천(後天)

Seoncheon and Hucheon

목차

- 1 선천과 후천의 개념
- 2 동학사상의 선천/후천 인식
- 3 대순사상의 선천/후천 인식
- 4 두 사상의 비교
- 5 결론 및 시사점

선천과 후천의 개념

先 선천(先天)

- ◆ 소강절에 의해 역학에 처음 도입된 개념
- ◆ 만물이 상극적으로 운행하기 **이전의 원리**
- ◆ 복희 8괘도와 하도(老子)의 우주 원리 관련
- ◆ 물질이 생성되기 전, 태초의 질서를 의미

後 후천(後天)

- ◆ 상제의 인신강세를 기점으로 한 새로운 시대
- ◆ 신명(神明)의 역할이 재규정되는 질적 전환점
- ◆ 동학에서는 '천주(天主)' 개념과 연결
- ◆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 확립 의미

선천과 후천은 단순한 시간적 구분이 아닌, **인간우주 관계의 근본적 변화**를 상징하는 개념입니다.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은 이 개념을 통해 우주와 인간사의 질서 재편을 설명하고, 새로운 근대성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.

선천(先天)과 후천(後天) -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천관 비교

동학사상이 보는 선천과 후천

開 '다시 개벽(도로선천)의 의미

동학사상에서 개벽은 '도로선천(回到先天)'이라는 의미를 가진 '다시 개벽'으로 해석됩니다.

표면적 의미

- ◆ 흔히 "후천개벽"으로 해석되어 왔음
- ◆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
- ◆ 동학교의 근대적 개혁 사상으로 간주

실제 의미

- ◆ 동학관련 종단의 기록은 "도로선천"을 시사
- ◆ 유교적 이상 사회(요순시대)로 회귀 지향
- ◆ 원점회귀적 사상이 강하게 내재

"당시의 문제를 유교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당시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다시 요순 시대로 돌아가는 '다시 개벽'이 될 수 있다."

동학의 현실적 지향점

- ◆ "온 나라 양반되기" - 신분제도의 평등이 아닌 상층 신분으로의 동화
- ◆ "왕후장상의 꿈" - 새로운 체제보다는 기존 체제 내 지위 상승 희망
- ◆ 후천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선천 질서의 재현에 가까웠음

대순사상이 보는 선천과 후천

대순사상은 선천을 **지양해야 할 부정적 개념이 아닌**, 생장염장의 원칙에 따라 **후천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 과정**으로 봅니다. 선천의 원한은 후천의 해원 동력이 됩니다.

후천의 특징

동서고금의 이치 융합

계통발생을 반복하는 개체발생처럼 동서고금의 이치 중 장점만 모아 구성된 세계

삼계(三界) 확립

천·지·인 삼계가 가변성, 항상성, 호환성을 가진 새로운 우주 질서 형성

상제 개념의 실체화

무극신, 태을천상원군을 통해 무극과 태극의 실체화

천계관의 재구성

- 상제로서의 천과 천지신명의 두 개념 확립
- 묵은 하늘과 새 하늘의 교체
- 천지 공사를 통한 명부공사 실현
- 천상분야열차지도의 천문 재정렬
- 음양합덕, 삼재확립, 오행구비의 질서

"후천은 동서고금의 시공간에 나타난 모든 이치의 융합을 의미한다. 따라서 동학사상의 조화에 나타난 동서양 천관지관인간관의 연결은 대순사상에 있어 삼계공사를 통해 융합으로까지 발전 한다."

두 사상의 비교와 결론

동학

동학사상의 후천관

- 후천을 지향하나 실제로는 '도로선천(선천회귀)' 추구
- '다시 개벽'을 요순시대로의 회귀로 해석
- 유교적 관점의 이상세계 추구
- "온 나라 양반 되기" → "왕후장상" 지향

대순

대순사상의 후천관

- 선천은 부정이 아닌 **후천으로 가는 과정**으로 인식
- '새 하늘 새 땅'의 창조적 개벽 추구
- 동서고금의 이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세계관
- 음양합덕, 삼계 확립, 신명 재배치

결론 및 시사점

- 1. 근대성 접근 차이:** 동학은 과거 지향적 근대성을, 대순은 융합적창조적 근대성을 제시했습니다.
- 2. 세계관 특징:** 대순사상은 기변성·항상성·호환성을 통해 우주와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합니다.

- 3. 현대적 의의:** 대순사상은 전통 천관으로 근대문명 문제를 해석하려는 독자적 접근으로 100여년 후인 현재까지도 유의미한 해석을 제공합니다.
- 4. 동서양 융합:** 동양의 속성적 천관과 서양의 실체적 천관의 합덕을 통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.